

# 이주민 구술 설화를 활용한 상호문화능력 신장의 교육 방안연구\* \*\*

김정은\*\*\*

## 〈차례〉

1. 서론
2. 이주민 구술 설화와 연관된 상호문화능력 신장 교육의 구성요소
3. 이주민 구술 설화를 활용한 상호문화능력 신장의 교육적 내용
4. 결론

## 〈국문초록〉

다양한 문화의 시대에 필요한 상호문화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달레나 드 카를로 (De Carlo, Maddalena)의 구술성에 주목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구술한 설화 자료를 바탕으로 ‘상징적 표상’이 생성하는 ‘다양한 가치’를 바탕으로 상대적 감각을 키워낼 수 있는 교육요소와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카를로의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와 접촉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 이 논문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주관하는 2016년 토대기초연구 지원사업 “다문화 시대 한국학을 위한 이주민 구술 설화 DB 구축” 연구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과제 번호 AKS-2016-KFR-1230004)

\*\* 이 논문은 2018년 4월 28일 한국문화치료연구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반영한 뒤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 건국대학교 서사와문화치료연구소 전임연구원

데, 한국에서 구술된 이주민 설화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서사적 화두를 통한 문화적 감응력의 확장을 교육요소로 논했다. 이를 6단계로 체계화했다. 1단계 이주민 구술 설화 자료 듣기, 2단계 기억에 각인되는 이질적 화소 찾기, 3단계 이질적 화소로 상징된 대립자질의 의미 파악하기, 4단계 핵심화소가 들어간 서사적 화두 생성하기, 5단계 서사적 화두로 상징적 표상이 내포하는 가치 생성하기, 6단계 삶의 가치를 문화적 상징으로 확장하기다.

3장에서는 이 6단계로 이주민 설화의 교육내용을 적용했다. 수업은 상호 문화에서 동질적 결합에 대한 욕망의 한계를 인지하고, 이질성으로 인한 소통의 장벽을 허무는 것과 표면과 이면의 사유를 통해 이질적인 것과 어떻게 관계를 생성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인도네시아 설화인 <뒤집어진 배산과 엄마산>은 한국설화는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오이디푸스>신화로 비교하면서 ‘뒤집어진 배산’이라는 이질적인 화소가 지니는 상징적 표상이 무엇인가를 풀어냈다. 이때 6단계 상징체계를 문화적으로 확장해 갈 때, ‘뒤집어진 배’에 나타나는 근친상간의 욕망을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것과의 결합을 추구하다 생긴 고착으로 해석해 보았다. 캄보디아 설화인 <소녀와 호랑이>는 한국의 <혹부리 영감>과 같은 모방담구조의 이야기인데, ‘호랑이’라는 화소를 보통 인간과 다른 동물성으로 상징되는 이질적 존재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를 문화적으로 확장해서 상호문화능력을 신장할 서사적 화두를 생성하였다. 베트남 설화인 <코코넛 바가지>는 한국의 <구렁덩덩신선비> 등과 비슷하게 표면과 이면에 대한 다양한 사유를 이끌어내는 설화로 이질적인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야하며, 그렇게 형성된 관계가 삶에 어떤 성장을 가지고 오게 하는가를 살펴보게 하는 방향의 해석이다. 설화의 핵심화소가 형성하는 대립자질로 서사적 화두를 생성하고 감응한다면, 이주민 설화로 낯설고 이질적인 문화와 관계를 형성하며 새로운 삶의 가능성으로 자신을 구성해 갈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하였다.

주제어: 이주민, 구술성, 상호문화능력, 이질성, 서사적 화두, 문화적 감응, 캄보디아 설화, 베트남 설화, 인도네시아 설화

## 1. 서론

구비설화는 전승되는 과정에서 그 서사만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구연자의 해석과 욕망, 청자의 반응에 따라 변이되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구비설화의 특징은 일반적인 문화의 특성 과도 연결된다. 문화 역시 고유성으로 정체성을 형성하며 유지되지만, 동시에 고정되는 것만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다른 문화와의 조우로 끊임없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역동성을 가진다.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양상이 가속화되면서,<sup>1)</sup> 동질성을 기반으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문화현상의 연구보다, 다양하고 낯선 문화와 잘 접촉하고 소통하는 능력 즉, ‘상호문화적 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sup>2)</sup>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다양

1) 2017년 법무부 출입국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204만9441명이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 『2016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7.6, <http://www.immigration.go.kr>. (검색일 2018. 4. 11)

10년 전인 2006년(91만명, 전체 인구의 1.9%)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로 전체 인구의 4%로 증가했다. 특히 베트남이 미국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체류 외국인이 많은 국가가 되었다. (파이낸셜뉴스, 2017. 6.21. <http://www.fnnews.com/news/201706211304361563>)

2) “복합적인 채널을 통해 수많은 지식과 가치들을 공유하고, 상호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국어과 교육의 핵심역량으로 논의되며 수업모형이 제시 되었다. (고희성,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을 위한 융복합교수-학습 방안 연구-국어와 도덕 교과와 ‘배려’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51, 국어교육학회, 2016.) 상호문화적 능력에 대해 “다른 나라,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 문학을 통해 타인의 체험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공감하고 반응하는 양상에 주목한 논의가 있었다. (김혜진,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 능력 향상을 위한 설화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8면.) 다문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상호문화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문학을 넘어 민족 간 상호문화 이해의 근간이 되는 민속 교육에 대한 설계가 논의되기도 했다. (이성희, 「다문화사회에서 상호문화능력 신장을 위한 한국 민속 교육의 설계」, 『한국민족문화학』 4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2.) 많은 논의가 있지만, 앞의 세 논문 이외에

한 문화가 공존하는 현대인에게 낯설고 이질적인 것을 어떻게 인정하며 소통해 갈 수 있을지가 우리의 삶의 과제가 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구비문학은 자신의 고유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소통’, ‘상호성’, ‘교감’, ‘공감’의 성격으로 새로운 변화를 생성하기에 이미 다문화 연구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sup>3)</sup> 문화의 소통 측면에서 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많은 것을 문학작품의 감상 이유를 ‘자기서사의 변화’에 주목하는<sup>4)</sup> 문학치료의 기본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문학작품은 ‘경험하지 않은 사건’에 감정을 이입하고 상상하게 해서, ‘타자의 서사’를 나의 서사로 현재화하게 하는 특징이 있어 이질적인 요소에 공감하게 하는 호소력이 있다. 우리가 상호 문화적 능력을 신장하고자 하는 이유는 낯설고 이질적인 문화를 통해 어떻게 우리 자신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하고 변화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상호문화를 논한 짐멜(G. Simmel)이 문화란 “자신에게 출발해서 자신에게 이르는 길”<sup>5)</sup>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접속하고 소통할 기회를 늘리는 과정에서 서로 상이한 문화로 혼란과 갈등도 있겠지만, 낯설고 이질적인 이주민 문화로는 자기 자

---

더 주목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김성진, 「상호문화주의와 세계문학 교육」, 『문학교육학』 49, 한국문학교육학회, 2015; 김혜진·김종철, 「상호 문화적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의 ‘홍’이해 교육」, 『한국언어문화학』 1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5; 임경순, 「다문화 시대 소설 교육의 한 방향」, 『문학교육학』 36, 한국문학교육학회, 2011.)

- 3) 오정미, 『다문화사회에서의 한국의 옛이야기와 문화교육』, 한국문화사, 2015; 이성희, 「다문화역량 신장을 위한 동아시아 이야기 콘텐츠의 주제론적 접근: <콩쥐팍쥐>와 <섬한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문화와평화』 11,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17; 하은하, 「한국어교육을 위한 동아시아 설화 비교 연구-한국, 베트남, 태국의 <나무꾼과 선녀>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31, 서울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17.

이주민 구술 설화 대상의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신동훈, 「새로운 한국어문학으로서 이주민 설화 구술의 성격과 의의」, 『국어국문학』 180, 국어국문학회, 2017; 오정미, 「이주민 설화 조사를 통해 본 새로운 다문화교육 방안」, 『구비문학연구』 47, 한국구비문학회, 2017.

- 4) 정운채, 「자기서사의 변화 과정과 공감 및 감동의 원리로서의 서사의 공명」, 『문학치료연구』 25, 한국문학치료학회, 2012, 372면.  
5) 최성환,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전망」, 『철학탐구』 24,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08, 301면.

신의 문화나 삶을 더 명확히 성찰할 동력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인되었거나 전승하고 싶은 모국의 구비설화를 한국어로 구술하게 하고 그것을 자료로 구축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토대연구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sup>6)</sup> 서울, 경기, 경상도에 있는 다문화도서관, 각 지역의 다문화센터, 다문화복지센터, 이주민 인권 단체 등을 알아가며 소개로 이주민을 만나고 있고, 한국어로 이주민이 어릴 때부터 들었던 설화를 자료로 만들고 있다. 이주민이 한국어로 구술해주는 그들의 구비설화는 21세기 다양한 문화의 시대에 상호 문화를 소통할 기회를 늘릴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이주민의 전통사유를 접하게 해준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한국인과 이주민 문화의 경계를 넘어 많은 사람들이 이질적이고 낯선 문화와 조우하게 하면서, 다문화 교육의 떠오르는 화두인 ‘상호문화능력’을 질적으로 신장해 가며, 인류가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문제’에서 ‘삶의 가치’를 통찰하게 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 이주민 설화의 구술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주민 각 문화의 세계관과 정체성을 설화의 낯설고 인상 깊은 화소와 상징적 배열로 고유하게 전승 하는 기능과 동시에, 청자에게는 보편적 인간이 겪는 삶의 문제와 연결되어 상징적 의미를 다의적으로 생성하게 하는 역동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만나 모국의 설화를 직접 듣고 채록하는 과정에서 느낀 구술문화의 성격은 ‘기억의 각인’과 ‘마음의 감응’이었다. 사건의 상황이나 인물의 행위가 한국의 구비설화나 외국의 설화지만 기억에 각인된 설화들과 얼핏 비슷한 요소를 비교하다보면, 오히려 우리와 거리가 있는 비현실적이고 낯선 상상의 세계라서 이질적이라

6) 본 연구자가 참여하는 이주민 설화 현지 조사 작업은 한국학진흥사업단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 사업으로, 과제명은 <다문화시대 한국학을 위한 이주민 설화 구술자료DB 구축>이다. 2016년 9월에서 2019년 8월까지 총 14명의 연구자들과 진행 중이다. 한국으로 이주해 온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자는 작년 9월부터 27명의 화자를 서울, 경기도, 경상도 지역을 돌아다니며 만나왔다.

고 생각했던 부분들의 이미지와 상징이 더 반복되어 떠오르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다 그 낯선 문화의 상징들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며 겪는 반복적이고 근원적인 삶의 문제와 맞닿게 되는 것을 통찰하게 될 때, 그들의 삶의 방식에 감응하게 되는 경험을 반복했다.

이는 구비 설화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원형적 문제를 짧은 이야기의 형식으로 기억에 각인시켜 이해하고 극복하도록 하는 구축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구비설화는 ‘상징적 표상’으로 표층적으로는 낯설고 특이하고 인상적이며 다소 불편한 화소로 자신과 다른 삶의 요소가 있는 타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면서도, 심층적으로는 이질적인 화소의 상징적인 ‘또 다른 의미의 작동’을 파악하게 하며, 반복되는 인간관계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마음을 감응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 이주민의 문화적 사유가 응축된 설화를 구술하고 듣는 과정은 각 나라의 낯설고 이질적인 화소로 구축된 삶의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을 기억에 각인하게 하면서, ‘이질성과의 마주침’을 통한 ‘삶의 실현’에 더 주목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다문화 교육의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이주민 구술 설화와 연관된 상호문화능력 신장 교육의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설화가 전승하는 보편적이지만 심오한 삶의 문제를 서사적 화두로 쟁점화하여, 이를 활용해 낯설고 이질적인 문화에 어떻게 문화적으로 감응하며 상호문화능력을 신장할 교육 내용을 생성해 낼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이주민 구술 설화와 연관된 상호문화능력 신장 교육의 구성요소

‘상호문화’는 독일의 사회학자 짐멜(G. Simmel)의 철학적 접근으로 시작되어, 앞서 연구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에도 많은 한국어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의에서는 이탈리아 교육자인 마달레나 드 카를로 (De Carlo, Maddalena)의 관점에 주목하게 되었다. 카를로의 이론은 이질성, 다양성, 정체성과 같은 현대 다문화 사회의 특징을 토대로 ‘상호문화교육’을 제시하면서도, 그중에서 정체성을 유지하며 문화를

교류하는 ‘구술성’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민이 구술하는 설화의 상호문화적 특성을 잘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카를로는 미국의 심리학자 브루너(J.Bruner)의 구술적 원칙을 받아들여,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그 안에서 자기자리를 찾을 수 있는 세계를 상상하도록 도와준다는 것”<sup>7)</sup>을 강조한다. 구술성을 통해 ‘상징적 표상’과 ‘가치’를 드러내고 그것을 서로 엮히게 하는 교환과정으로, 다양한 문화 사람들을 ‘화자의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sup>8)</sup>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카를로의 이론은, 이주민을 설화를 전승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본 논의와 연결될 수 있다.

연구자가 실제로 이주민 설화를 구술할 사람을 찾고, 그들이 구술하는 설화를 듣는 과정에서 이주민들은 문화적 주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다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전승하는 주체가 되어, 자신에게 각인된 설화가 무엇이 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기도 하고, 연구자들을 만나기 전에 모국에 있는 할머니, 어머니 등에게 전화를 걸어 설화의 내용을 확인하기도 했으며, 그것도 여의치 않은 화자들은 모국의 책을 구해서 읽은 내용을 기억해 내며 한국어로 구술하는 적극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구술설화를 통해 문화를 공유하고자 하는 이주민의 태도가 가능한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가진 설화로 이주민에게 부여하는 가치인 ‘인정’, 한국에 없는 독특한 설화를 전승할 수 있는 주체로 호명되어 이주민의 개별성을 확인해주는 가능성인 ‘유일성’, 집단 차원에서 일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의 일원임을 인정받을 필요성인 ‘유사성’<sup>9)</sup>에 의해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할 수 있다.

7) 마달레나 드 카를로 저, 장한업 옮김, 『상호문화 이해하기: 개념과 활용』, 한울, 2011, 115면.

8) 위의 책, 54면.

9) 카를로는 “타인과의 관계라는 차원은 (타인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가치인) 인정, (우리의 개별성을 확인해주는 가능성인) 유일성, (일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의 일원임을 인정받을 필요성인) 유사성에 의해서 드러난다.”고 했다. (위의 책, 114면.)

카를로는 “모국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모든 문화에 속하는 기제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자기 확신의 상대적 감각을 개발한다는 차원의 교육”으로, 상대성 감각은 다른 문화에 속하는 개념과 상황이 낯설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sup>10)</sup> 이를 위해 마찬가지로 이주민이 모국의 설화를 구술하는 과정에서 모국의 문화를 더 긍정하게 하며 이해할 수 있는 기제로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모국의 구비설화가 가지는 ‘상징적 표상’과 ‘가치’를 전승하며 상대적 감각을 신장하는 교육을 구성해 볼 수 있다.

구비설화는 화자도 자신의 방식으로 이해하여 전승하고, 청자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게 된다. 구비설화의 ‘상징적 표상’은 다른 나라의 낯설고 이질적인 화소일 때 표면적으로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생각하게 하면서, 잠재적이고 숨겨진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어 그 이면을 사유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 이주민이 구술하는 설화의 ‘상징적 표상’을 통해 ‘가치’를 통찰하게 한다면, 문화에 대한 상대적인 감각을 키우며 소통하게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호문화능력을 신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이주민 구술 설화를 활용했을 때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어떤 교육요소가 중심이 되어야 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에 대한 상대적 감각을 신장하게 하는 데 주목할 수 있는 이주민 구술 설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국설화에서 볼 수 없는 이질적이고 낯선 ‘화소’이다. 상대적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낯선 화소의 ‘상징적 표상’에 대해 생각하며, 화소로 인한 사건 등에서 생성되는 대립자질을 파악하고 그 대립을 해결함으로써 생기고 있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sup>11)</sup> 이

10) 위의 책, 55면.

11) 대립자질의 개념은 이미 레비스트로스 등의 구조주의 신화학에서 제기되었던 것으로 대립되는 자질로 대립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C.I.레비스트로스 저, 안정남 역, 『야생의 사고』, 1999, 한길사.)

설화가 화소를 통해서 어떻게 삶의 문제를 핵심적으로 통찰하는 이야기를 생성하는가를 살펴봤을 때 발견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립자질’이다. ‘대립자질’은

주민들의 구비설화는 표면과 이면의 차이를 서사적으로 상징화하여 다양한 가치를 생성하는 특징이 있어, ‘삶의 가치’를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게 사유하며 상대적 감각을 신장하게 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낯선 문화의 이질성에 대해 숨겨진 가치와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가치의 상대성을 인식하며 문화에 대해 열린 사고와 사유를 하게 된다.

이주민 구술 설화로 상대적 감각을 키워낼 때, 설화를 통해 표현된 ‘상징적 표상’이 삶의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사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류의 삶 속에서 문화적 보편성으로 자기 자신과도 연관된 가치의 문제임을 파악해 가는 과정 역시 필요하다. ‘상호문화적’으로 이주민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정주민 역시 이런 상대적 감각을 키워냄으로써,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나 문화, 사유를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의에서는 상호문화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적 요소로 ‘상징적 표상’이 생성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문화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이질성 : 동질성’의 상징적 대립에 주목할 때, 어떤 삶의 문제가 드러나는지 ‘서사적 화두’<sup>12)</sup>로 명명해 보고자 한다.

---

레비스트로스의 대립구조, 막스뮈티의 양극성, 융 심리학의 대극성, 나가자와 신이치의 대칭성 등으로 다르게 표현되지만, 근원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서로 대립점을 이루면서 의미화 되어 있다는 것이 설화의 기본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쉽게 어울리지 않는 대립적인 화소들이 어울려 있으면서 의미를 생성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질적인 삶과 죽음의 사이, 동물과 인간의 사이에서조차도 동질성과 대칭성을 찾아내며, 인간의 인지로 모두 정의하거나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모순적 지점을 상징적으로 구조화하며 풀어낼 수 있게 된다. (김정은, 「설화의 서사문법을 활용한 자기발견과 치유의 이야기 창작 방법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3면.)

- 12) 설화는 매우 다양한 화소가 서로 연결되어 구조를 만드는데, 여기서 서사적 화두란 불교에서 수행자가 궁구하는 근본문제서 확장해, 설화의 대립자질로 형성되는 삶의 근원적 문제를 말한다. (김정은, 위의 논문, 22면.) 이를 확장해서, 설화는 핵심화소로서의 대립자질로 두 개 이상의 대상을 두고 관계를 형성하며 서사적 화두를 생성하는데, 설화의 서사원리를 통해 어떤 삶의 문제를 각인하게 하는가를 서사적 화두로 논의했었다. (김정은, 「<콩치 닷 발 주둥이 닷 발>설화에 나타난 탐색과 문답의 서사원리 연구」, 『한국고전연구』 38, 한국고전연구학회, 2017, 142면.) 신동훈은 형태적 구심은 순차적 구조라면, 의미적 구심을 ‘서사적 화두’로 상

‘서사적 화두’란 재현되는 설화를 통해 각인되는 삶의 문제를 말한다. 서사적 이야기의 화소, 대립항, 순차구조가 배열되어 결합되었다고 해서 모두 구비설화로 전승되는 것은 아니다.<sup>13)</sup> 낯설고 비현실적인 화소로 기억에 각인되어 전승될 수 있는 이야기에는 대립적인 양항의 상징성을 다의적으로 해석하게 하는 삶의 근원적인 물음이 있다. 구술된 설화의 서사적 화두는 가슴을 ‘탁’치고, 혀를 내두르며 기존의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의심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

한국어로 구술된 이주민 설화에서 상대적 감각을 키우기 위해 서사적 화두를 추출해 내는 까닭은, 이주민과 정주민의 경계를 넘어 이질적이고 신이한 화소가 이끄는 서사의 방향으로 개인적 경험과 삶을 통찰하게 하는 과정에서, 공감보다 더 역동적인 ‘문화적 감응’을 형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질적인 타자의 문화 정체성과 우리 고유의 문화적 사유가 상호 소통적이고 융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을 경험하고 확장하게 하는 특성을 ‘문화적 감응’이라 할 때, 이주민 구술 설화에서 한국 설화에서 접하지 못했던 낯설고 이질적인 화소 중에 우리나라 설화나 이미 알고 있는 설화의 화소와 비슷한 것은 없는지, 비슷한 데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인지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새로운 가치를 획득해 갈 수 있게 된다. 이때 상대적 감각을 신장할 문화적 감응을

---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서사적 의미의 축을 이루는 쟁점적 문젯거리’로 정의하고, <신바닥이>를 예시로 설화 분석에서 서사적 화두를 중심으로 의미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신동훈, 「서사적 화두를 축으로 한 화소-구조 통합형 설화 분석방법 연구」, 『구비문학연구』 46, 한국구비문학학회, 2017, 25면.)

- 13) 설화는 화소, 대립항, 순차구조인 서사문법의 요소가 있다고 해서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서사적으로 각인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바리데기가 살을 살리는 살살이꽃, 피를 돌게 하는 피살이꽃, 숨을 쉬게 하는 숨살이꽃으로 오구대왕을 문지른다고 해서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서천서역국의 생명수를 먹어야만 깨어나는 것과 비교될 수 있다. 영화 <프랑켄슈타인>에서 뛰어난 두뇌, 심장, 건강한 몸 등이 조합되는 것만으로 생명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전기충격을 받을 때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서천서역국의 생명수, 전기충격처럼 이야기를 일으켜 전승하게 움직이는 힘을 서사적 화두와 비유할 수 있다.

위해 먼저 이질적인 핵심화소를 찾고 그 화소로 상징된 대립자질의 의미를 파악하여, 다음으로 서사적 화두를 추출하고, 그 서사적 화두로 설화의 상징적 표상이 내포하는 가치를 생성하고, 그것을 문화적 상징으로 확장해서 해석하는 과정을 가진다. 이를 바탕으로 이주민 구술설화를 통해 상호문화능력을 신장할 교육요소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도록, 다음과 같은 6단계로 세분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

1단계 : 이주민 설화를 구술하기 혹은 듣기



2단계 : 기억에 각인되는 이질적인 화소 찾기



3단계 : 이질적 화소로 상징된 대립자질의 의미 파악하기



4단계 : 핵심화소가 들어간 서사적 화두 생성하기



5단계 : 서사적 화두로 상징적 표상이 내포하는 가치 생성하기



6단계 : 삶의 가치를 문화적 상징으로 확장하기

1단계에서 본 연구자의 프로젝트 팀들이 조사한 이주민 구술 설화 자료를 교수가 들려줄 수 있고, 유학생 등의 이주민이 있는 교육 현장이라면, 그들에게 설화를 구술하게 할 수도 있다. 이후 이주민 구술 설화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다면 더욱 많은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에서는 한국인이 상호문화능력을 신장하고자 할 때, 한국의 구비설화의 동질적인 것과 이질적인 것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기억에 각인되

는 화소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의 이주민 역시 모국의 설화와 비교하며 동질적이고 이질적인 요소를 찾아가는 과정은 진정한 상호문화적인 태도이다. 3단계에서 대립자질을 찾을 때는 설화의 화소가 ‘상징적 표상’임을 인지하게 하고,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4단계에서는 ‘서사적 화두’는 가치가 대립될 수 있는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5단계에서는 그 서사적 화두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다. 6단계는 설화의 상징적 체계를 문화적으로 확장해 가는 과정이다. 설화의 상징적 표상으로 상대적 감각을 키워가며 상호문화능력을 신장하는 기제로까지 활용해 보기 위한 단계이다. 이에 대한 내용을 조사했던 이주민 구술 설화로 다음 장에서 구체화해 보도록 하겠다.

### 3. 이주민 구술 설화를 활용한 상호문화능력 신장의 교육적 내용

3장에서는 이주민 구술 설화로 어떻게 상호문화능력을 신장할 수 있을지의 교육적 내용을 풀어내고자 한다. 다음의 수업은 상호문화에서 동질적 결합에 대한 욕망의 한계를 인지하고, 이질성으로 인한 소통의 장벽을 허무는 것과 표면과 이면의 사유를 통해 이질적인 것과 어떻게 관계를 생성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인도네시아 설화인 <뒤집어진 배산과 엄마산>은 한국설화는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각인되어 있는 <오이디푸스>신화와 비교하면서 ‘뒤집어진 배산’이라는 이질적인 화소가 지니는 상징적 표상이 무엇인가를 풀어냈다. 이때 6단계 상징체계를 문화적으로 확장해 갈 때, ‘뒤집어진 배’에 나타나는 근친상간의 욕망을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것과의 결합을 추구하다 생긴 고착으로 해석해 보았다. 캄보디아 설화인 <소녀와 호랑이>는 한국의 <흑부리 영감>과 같은 모방담의 구조를 가진 이야기로, ‘호랑이’라는 화소를 보통 인간과 다른 이질적 존재의 상징으로 보고, 이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를 문화적으로 확장해서 상호문화능력을 신장할 서사적 화두를 생성하였다.

베트남 설화인 <코코넛 바가지>는 한국의 <구렁덩덩신선비> 등의 화두인 ‘표면 : 이면’에 대한 다양한 사유를 이끌어내는 설화로 다가서기 힘든 이질적인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야하며, 그렇게 형성된 관계가 삶에 어떤 성장을 가지고 오게 하는가를 살펴보게 하는 방향의 해석을 했다.

1) 동질적 결합의 욕망으로 인한 고착 : <뒤집어진 배산과 엄마산>과 <오이디푸스>신화

이주민 설화 조사 중에는 이주민이 보고 자랐던 지역의 전설을 인상 깊게 전승하는 경우가 많다. 돌이 되고, 산이 되고, 강이 되고, 나무가 되고, 동물이 되는 전설에는 삶의 문제가 풀리지 못해 그대로 멈춰 있는 모습이 형상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설화들의 서사적 화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왜 그들의 삶은 그 자리에 멈췄는가와 서사적 화두를 던지며 계속 그들을 생각하고 통찰하게 하는 이야기 방식이 전설이다. 그러다 보니 그 문화의 특성이 더욱 많이 담겨 있고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을 사유하게 할 때가 많다. 이주민들에게 전설을 듣는 것은, 사연 있는 그곳에 호기심이 생겨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기도 하고, 그 멀리 있는 산과 호수가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흥미로운 문화체험의 장이 되기도 한다.

다음의 인도네시아 전설은 화자가 반둥 도시가 있는 서부 자바에서 자라면서 자신의 엄마에게 자주 들었던 이야기 <뒤집어진 배 산과 엄마 산(공주산)>-‘구능 땅구반 뿌라후(Gunung Tangkuban Perahu)<sup>14)</sup>와 ‘구능 뿌뜨리(Gunung Putri)’-이다. 이 설화는 2017년 10월 21일에 ‘안산다

14) 서부자바의 반둥에서 북면으로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활화산으로 고도 2,084m이다. 순다어로 땅구반은 ‘뒤집다’, 뿌라후는 ‘배’라는 뜻이다. 멀리서 보면 뒤집힌 배 모양으로 생겼다. (임진숙, 『천 가지 이야기가 있는 나라 인도네시아』, 즐거운 상상, 2007, 63면.)

문화작은 도서관'의 소개로 안산의 <세계문화체험관>에서 채록한 이야기다.<sup>15)</sup> 이야기를 들려준 인도네시아 출신의 수산티 화자는 조사 당시 42살로, 31살에 결혼을 해서 한국에 이주한지 11년차로, 현재는 인도네시아 이주민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하고 다문화강사로 활동 중이다. 9살의 딸과 7살의 아들이 있다. 세 편<sup>16)</sup>의 인도네시아 설화와 2편의 인도네시아 민속을 들려주었다. 그중 <뒤집어진 배 산과 엄마 산>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리스로마 신화인 <오이디푸스>에도 있는 근친상간의 문제를 더 원형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1단계로 다음의 서사단락을 바탕으로 교사가 구술해 볼 수 있다.

- ① 어느 나라에 왕에게 다이앙송비라는 도도한 딸이 있었는데, 모든 왕자들과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 ② 화가 난 왕이 공주를 숲에 내보내자, 숲에서 공주는 옷을 만들다 실수를 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여자면 나의 동생으로 삼고, 남자면 결혼을 하겠다고 했다.
- ③ 그때 뚜망이라는 개가 옷을 들고 나타나자 공주는 개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다.

15) 안산다문화 작은도서관은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다문화자녀들을 대상으로 여러 독서모임과 강좌를 하고 있다. 그중 옛이야기와 동화책을 좋아해서 다문화강사로 활동 중인 이주여성들의 '옛이야기 모임'이 있었는데, 그 곳의 9분이 이주민설화 조사에 참여를 해주셨다. 3분씩 나눠서 3번의 이야기판을 진행했다. 인도네시아 출신 수산티, 우즈베키스탄 출신 사히스타, 태국 출신 사이얌팟 화자가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이야기를 풀어냈고, 한 명이 신데렐라 유형의 이야기를 하자, 다른 화자들도 우리나라에도 있다며 그 유형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2시간 동안 아주 유쾌한 분위기에서 세 분이 번갈아 가며 이야기를 하고, 들을 때는 적극적인 청자가 되어 다른 나라에도 재밌는 이야기가 많다면 즐거워해주셨다. 화자를 섭외 해주시고, 장소를 제공해주신 다문화작은도서관 정은주 부관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16) 이날 수산티 화자가 구술한 설화는 <배 뒤집어진 산과 엄마산>, <마왕뿌띠와 마왕매라>, <시띠노르바야>(중국의 양산백 설화와 비슷), 민속으로 <바다에서 초록색을 입으면 안된다>, <밤에 빗자루를 쓸면 바보가 되고, 아침에 쓸면 돈을 못 번다>의 의미를 구술하였다. (조사자: 김정은, 황승업, 강새미)

- ④ 아들은 아버지가 꾸밈인 줄 모르고 자라고, 생일날 사슴을 잡고 싶어서 꾸밈을 데리고 갔는데 사슴이 잡히지 않자 꾸밈을 죽인다.
- ⑤ 아들은 엄마에게 고기를 가져다주어 함께 먹었는데, 엄마가 꾸밈이 어디갔냐고 물었더니, 그 고기라고 대답했다.
- ⑥ 화가 난 엄마는 아들을 때려 머리에 상처를 냈고, 아들은 떠난다.
- ⑦ 많은 세월이 흘러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예쁜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어 결혼을 하기로 했다.
- ⑧ 예쁜 여자는 머리에 상처를 보고 자신의 아들임을 알고 엄마라고 말했다지만, 아들은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한다고 했다.
- ⑨ 그러자 엄마는 타따름이라는 강을 하루 동안 막아서 호수를 만들고 배를 만들어 띄워야 결혼을 하겠다고 했다.
- ⑩ 아들이 하루 사이에 호수를 막고 배를 만들고 있자, 엄마는 새벽에 우는 닭을 더 일찍 울게 했다.
- ⑪ 아들이 새벽인 줄 알고 엄마랑 결혼을 못하게 되어 슬퍼하며 멈췄는데, 계속 밤이었다.
- ⑫ 자신을 속인 엄마에게 화가 난 아들이 배를 던지자 ‘땡꾸반 뽀라후(뒤집어진 배)’라는 산이 생겼다.
- ⑬ 엄마는 산으로 숨었는데, 그 산은 엄마가 숨겨진 모습이라서 ‘뿌뜨리(엄마, 공주)’라고 한다.
- ⑭ 엄마를 계속 찾던 아들은 호수에 몸을 던졌다.

2단계는 이질적이고 핵심적인 화소를 찾는 과정이다. 설화의 서사를 형상화하는 이야기의 최소 요소를 ‘화소’라고 한다. 전설은 그 지역, 그 문화를 대변하는 독특한 화소로 호기심을 자아내면서도, 인류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욕망의 문제를 충격적으로 와 닿게 하는 특징이 있다. 수산티 화자는 고향에서 산꼭대기가 뒤집어진 배처럼 생긴 높은 산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고, 엄마는 그 산을 보며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의 활화산이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다는 지역적 특수성도 있

으면서, <오이디푸스>신화와 비슷한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그러나 <오이디푸스>신화와 다르게 ‘예언’을 핵심화소로 사건이 진행되는 순차구조가 아니면서, <뒤집어진 배 산과 엄마 산>은 ‘욕망과 관계’에 더 집중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

이 전설에는 독특한 화소가 많다. 배가 뒤집어져 산이 되기까지 독특한 화소들이 맞물리고 있는데, ‘도도한 공주’와 ‘개’의 ‘이물교환’, 아버지인 개를 아들이 죽이는 ‘부성살해’, 엄마와 결혼하고 싶은 아들의 ‘근친상간’까지 원형적이고 심층적인 욕망을 드러내는 요소들이 가득하다.

이 설화에서는 아들이 던진 ‘뒤집어진 배’가 가장 각인되므로 핵심화소가 된다. 배는 호수는 물론 강으로 바다로 ‘질주’하며 가보지 못한 새로운 땅을 가보게 하는 속성이 있다. 그러나 산으로 올라간 배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 배가 금기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질주하는 아들의 ‘욕망’을 상징한다면, 그것이 ‘뒤집어졌다’는 것은 욕망이 멈추고 좌절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욕망의 자리에 머뭇머뭇 ‘고착’해 있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이를 통해 3단계인 ‘움직임 : 머뭇’, ‘질주 : 고착’, ‘이동 : 정지’의 대립자질로 설화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핵심화소와 대립자질을 활용해 4단계인 “왜 아들의 배는 드넓은 강으로 질주하지 못하고 산에 뒤집어진 배로 고착되었는가?”의 서사적 화두를 생성할 수 있다.

그런데 고착된 것은 아들뿐이 아니다. 어머니기 전에 도도한 공주였던 다이양송비 역시 이 대립자질의 성향을 가진다. 도도함을 이유로 다른 나라 왕자들을 거부하며, 공주는 왕인 아버지의 성을 떠나지 않으려 한다. 개와 결혼을 하지만 공주에 머물러 있는 삶은 바뀌지 않는다. 젊은 아들이 사랑에 빠질 정도로 늙지도 않는다. 수산티 화자는 자신의 엄마에게 들었던 대로 숨어 있는 엄마의 모습을 한 ‘엄마산’이라고 전승 했지만, Putri(뿌뜨리)는 공주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아들의 탄생으로 엄마’가 됐지만, 영원히 성장하지 않고 ‘정지된 공주’의 시간이 함께 고착되어 있

음을 보여주는 산의 이름이다.

이 공주가 타인과 교류를 원하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이 숲으로 쫓겨났을 때다. 누군가 자신에게 외주길 간절하게 바라자 뚝망이라는 개가 나타난다.

“만약에 누가 나한테 도와주시면은,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랑 만약에 여자시면은 나한테 동생 만들고, 아니면 만약에 남자면 나는 그 남자랑 결혼한다.”고. 그런데 그 자기 도와주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한 어떤 개, 강아지. [조사자: 강아지가요?] 예, 예. 강아지가 옷이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옷을 또 갖고 오는 사람이는 개예요. 그 개 이름은 뚝망이에요. [조사자: 뚝망?] 예, 근데 뭐 벌써 그 마을 나오니까, 그 개랑 결혼해요. [조사자: 개랑 결혼을 했어요?] 예, 개랑. 근데 몰라, **그거 이야기에 개면은. 그 개는 원래 뭐 신 같은 거 개**, 강아지 있으니까 결혼했다가 애도 낳고. (전사: 황승업)

수산티 화자가 공주에게 온 개를 자연스럽게 동물보다 신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전승하는 장면이다. 이야기에 나오는 동물적인 존재에는 신성이 있음을 자연스레 연결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사유를 볼 수 있다. 이후에 아들이 하루 사이에 강을 막아 호수를 만드는 것 역시 아버지가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sup>17)</sup> 수산티 화자의 말처럼 이 이야기에서 ‘개’라는 존재는 수성(獸性)적 존재이면서도 신성(神性)을 가진 양면성이 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개는 나의 소망에 충직한 뚝망이라는 개로 공주는 여전히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살게 된다. 변화를 싫어하고 익숙한 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지속’ 혹은 ‘정지’의 힘이 공주에게 있다. 그래도 자신만의 삶에서 개를 남편으로 받아들이자 새로운 생명인 아들을 낳게 되는 변화가 생겨, 산의 이름처럼 공주이자 어머니인 두 정체성을

17) 근데 아들이 보니까 아빠는 강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좀 신처럼 하니까 빨리 완성할 수 있나봐요. (전사: 황승업)

가지게 되었다.

5단계는 설화의 의미 생성단계인데, 이 부분은 교사가 학습자의 자기 서사와 맞물려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열어두어야 한다.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보았다. 아버지로부터 신성과 수성의 욕망을, 어머니에게 인성을 받은 아들은 영웅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사슴 대신 아버지인 개를 죽여서 먹고, 어머니의 분노로 성을 떠나고 아들은 다시 돌아와 어머니와 사랑에 빠지며 영웅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 부성살해 모티프는 영웅신화에 자주 등장한다. 프로이드는 이를 어머니와의 성애적 욕망 때문으로 보았지만, 부성살해를 문화적인 상징으로 해석할 때는 아들이 아버지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갈 때, 부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문화의 주역이 된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단지 친부를 직접 살해하는 것은 인륜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주몽이나 그리스 신화의 영웅들처럼 ‘길러준 아버지’와 ‘낳아준 아버지’를 다르게 하거나, 동물성으로 표현하여, 기존의 부성, 기존의 가치관, 기존의 문화를 넘어서 도전하는 나이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뚝망울 죽이고 뚝망울 먹은 아들은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기에 엄마의 세계에 머무를 수 없어 쫓겨난다. 여기까지라면 영웅의 행보다. 그러나 아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 아들을 쫓아낸 엄마는 다시 공주의 시간에 머물러 있다. 엄마가 공주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엄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들은 고향에 돌아왔다 다시 다른 세계로 나아가 자기 삶의 주인공을 상징하는 영웅이 되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머물러 있는 힘이 강한 엄마와 다시 만난 아들은 다시 공주로 멈춰진 엄마의 세계에 머무르려고 한다. 그리고 아들을 떠나려고 거짓말을 한 엄마에 대한 원초적 분노감은 배를 산으로 던지게 하고, 그 단계에 고착된 모습으로 남겨진다.

6단계로 이러한 ‘근친적 욕망’을 상호문화능력 교육의 관점에서 ‘동질적 결합의 욕망’으로 상징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 아들은 익숙한 문화, 자신과 동질적인 문화와 결합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다. 그 결과 뚝망울의

힘을 이어받아 하루 만에 똑딱 만든 아들의 배는 드넓은 세상을 질주하며 타자를 만나고 이질성과 마주치며 살아갈 도구가 못 되고, 익숙하고 변화하지 않는 어머니와의 동질적인 결합을 위한 욕망이 되어버려 움직이지 못하는 산에 정지되고 고착되어 버렸다. 어머니가 흐르는 강을 막아 호수로 만들라는 것도, 아들이 자신이 만든 호수에 빠지는 것도 고착과 연관될 수 있는 흐름이다. 변화를 거부하고 익숙한 것만을 취하고자 하는 근친 결합의 욕망에 스스로 사로잡힌 형상이 산의 모습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뒤집어진 배산과 엄마산>설화는 뒤집어진 배 모양의 정상을 가지고 있는 활화산을 통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경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응축해 보여주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다로 질주하지 못하는 배처럼 움직이지 않고 동질적인 것에 계속 머물고자 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고착’의 문제를 우리 삶에서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하는 화두를 주어, 한 나라 문화만의 문제가 아닌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넘어서야 할 보편적인 문제로 사유하게 한다. 익숙하고 동질적인 문화에 고착되어 산에 배를 멈춰있게 할 것인지, 낯설고 이질적인 문화를 넘나들 수 있는 사유로 배를 강과 함께 흐르게 할 것인지는 이 이주민설화에 문화적으로 감응했을 때 쉽게 대답할 수 있게 된다.

## 2) 이질적 존재와의 관계 생성 : <소녀와 호랑이>와 <흑부리 영감>

설화의 화소는 낯설고 비현실적인 존재나 공간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그런 비현실적인 존재와 현실의 존재가 관계를 맺으며 사건이 형성된다.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말을 하고, 환상의 존재와 만나기도 한다. 때론 인간보다 못한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는데, 인간보다 신이한 능력을 가진 존재들인 경우가 많다. 설화에서 낯선 존재를 등장하게 하는 것은 관습적인 사유의 방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함으로써 지각을 새롭게<sup>18)</sup> 하고자 하는 고도의 서사 전략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sup>19)</sup> 이

렇게 낮설고 환상적인 화소를 설화의 상징성으로 현실과는 다른 삶의 방식, 즉 다른 문화를 가진 이질적인 존재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설화가 이런 이질적인 존재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삶을 환기하게 하는 것을 문화에 접목해, 이질적인 문화와 어떻게 감응하며 보다 나은 삶의 가치를 획득해 갈 수 있을까 하는 논의로 확장할 수 있다. 다음의 설화를 통해 더 자세히 논해보고자 한다.

<소녀와 호랑이>설화는 2018년 2월 6일에 진주시 ‘YWCA 다문화작은도서관’에서 채록한 이야기다.<sup>20)</sup> 이야기를 들려준 캄보디아 출신의 썸마카라 화자는 조사 당시 30살로, 26살에 결혼을 해서 한국에 이주한 3년 6개월 차의 주부로 첫 딸을 임신한 상황이었다. 프로젝트의 의의를 듣고 기억을 해내려고 노력하며 일곱 편<sup>21)</sup>의 캄보디아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중 <소녀와 호랑이>는 준비를 해 와서 처음 들려준 이야기로, 약 9분 동안 구연되었다. 1단계 설화의 내용을 인지하는 것으로, 모방담의 구조를 가진 <소녀와 호랑이>설화의 서사단락은 다음과 같다.

- 
- 18) ‘낮설게 하기’는 예술에서 관습적인 기호체계를 낮설게 만들고 파괴시켜서 언어의 물질적 과정 자체를 두드러지게 하여 우리의 지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다. 언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의식 또한 변화되는 것이다. (테리 이글턴 저, 김명환 외 역, 『문학이론입문』, 창작과비평사, 2015, 126면.)
- 19) 이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설화의 서사문법’으로 논했다. 설화는 서사문법에 따라 양향적으로 배열되어, 낮선 화소를 통해 차이를 지각하게 하는 대립자질을 선택하고 결합하며 상징적인 맥락을 형성해 통합되는 서사의 방향을 구축한다. (김정은, 앞의 논문, 23면.)
- 20) 진주시 ‘YWCA 다문화작은도서관’에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다문화교육을 하고, 다문화도서관을 통하여 이주여성들을 다문화강사로 육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이날 총 8명의 연구원들이 가서, 네팔 화자 3명, 베트남 화자 2명, 캄보디아 화자 1명, 중국(조선족) 화자 1명을 세 팀으로 나눠서 설화를 조사했다. 썸마카라 화자는 이 프로젝트의 의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했고, 이후 7편의 민담을 구술하였다. 화자를 연결해주시고 장소를 제공해주신 진주YWCA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21) 썸마카라 화자가 구술한 설화의 순서는 <소녀와 호랑이>, <도끼와 깨진 도자기>, <백만장자 음식 냄새 맡은 가난한 부부>, <프놈산과 할머니>, <완벽한 여자와 사치스러운 여자>, <도끼와 할머니>, <깡깡뽕>이다. 썸마카라 화자는 프로젝트의 의의를 듣고 2편의 이야기를 준비해오고, 함께 했던 중국화자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기억나는 5편의 설화를 더 이어갔다. (조사자: 김정은, 황승엽, 강새미)

- ① 가난한 집에 14살 소녀가 고구마를 캐다 호미가 웅덩이 깊숙이 빠지게 되었다.
- ② 소녀가 누구든지 호미를 꺼내주면 뭐든지 다해서 은혜를 갚겠다고 했다.
- ③ 호랑이가 나타나 호미를 찾아줄 테니, 자신의 머리에 상처를 치료해 달라고 한다.
- ④ 소녀가 호랑이 머리의 구더기가 가득한 상처를 치료하는데, 호랑이는 자신의 상처에서 냄새가 나냐고 자꾸 물었다.
- ⑤ 소녀는 냄새가 나지만 아무 냄새도 안 난다고 계속 대답했다.
- ⑥ 호랑이는 보자기를 가져오게 해서 가득 채워주고는 집에서 가족을 불러서 문을 닫고 보라고 했다.
- ⑦ 보자기에는 금이랑 악세서리가 가득이어서 소녀는 부자가 되었다.
- ⑧ 옆집에 사는 부자 소녀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를 듣고, 고구마를 캐러갔다.
- ⑨ 호미를 일부러 던져서 호랑이를 만났는데, 호랑이가 상처를 고쳐달라며 냄새가 나냐고 물었는데 계속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대답을 했다.
- ⑩ 호랑이가 보자기를 주면서 가족과 방에서 문을 닫고 풀어보라고 했다.
- ⑪ 보자기에서 독사가 나와 소녀와 가족 모두가 죽게 되었다.

<혹부리 영감>의 모방담 구조와 동일한 이 설화의 교훈을 서사적 화두 없이 해석해서 가난한 소녀와 부자소녀의 대립적인 서사방향만 비교한다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가 된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다른 설화의 교훈과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구비설화의 서사적 화두는 각인되는 것에서 시작하면 좀 더 그 의미에 다가가기 쉬워지는데, 주로 설화에서 각인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낮설지만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화소일 때가 많다. 1단계로 이 설화에서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화소는 ‘말하는 호랑이’, ‘복도 주고 벌도 주는 호랑이’로, 이 호랑이는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른 이질적인 존재다. 특히 ‘상처로

인해 냄새가 나는 호랑이'라는 것이 이 설화를 각인되게 하는 화소의 핵심문제다. 가난한 소녀가 하나뿐인 호미를 찾을 길 없어 외친 절박한 말에 이 호랑이가 나타난다. 이 호랑이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면서도, 머리에 상처로 냄새까지 심하게 나서 더욱 쉽게 다가가기 어렵다. 하지만 가난한 소녀는 호랑이에게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서 상처로 인해 생긴 호랑이의 '고약한 냄새'는 <혹부리 영감>의 '혹'처럼 감추고 싶은 치부나 콤플렉스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냄새가 나나는 반복되는 질문은 자신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소녀의 마음을 시험하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타자와 관계맺기를 두려워하는 호랑이의 마음도 보게 하기 때문이다. 머리의 상처는 관계를 맺지 못해 생긴 또 다른 상처이기도 하다.

3단계로 두 소녀가 호랑이를 대하는 태도에서 대립 자질을 찾아볼 수 있다. 소녀는 호미를 가져다준 은혜를 갚기 위해 아픈 호랑이의 마음을 헤아리며 구더기 하나하나를 없애주고 상처를 치료해준다. 이런 소녀에게 호랑이는 원조자가 되어 절박했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가 된다.

반대로 부자소녀는 가난한 소녀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에만 관심이 있다. 부자 소녀에게 호랑이는 부자가 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냄새나는 호랑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냄새가 난다고 면박을 주자 호랑이는 부자소녀를 응징하는 징치자가 된다. 호랑이는 방의 문을 닫으라고 한다. 독사에게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는 징치의 의미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소통, 교감을 닫은 마음이 그들에게 독이 되어 온 형상이기도 하다.

4단계로 이렇게 화소로 인해 생긴 사건과 그 사건의 서사적 방향을 보여주는 모방구조의 비교로, “호랑이는 왜 가난한 소녀에게 부자를 만들어 주는 원조자가 되고, 부자 소녀에게는 벌을 가하는 징치자가 된 것일까?” 하는 서사적 화두를 추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혹부리 영감>에서 두 혹부리 영감이 도깨비를 대하는 태도와 연관될 수 있는 화두와 동일하다.

5단계는 화두를 통한 해석단계이다. 이렇게 분석해 가면 거창한 것 같

지만, 이미 많은 화자가 이 점을 내재하고 이야기한다. 이야기를 다 끝내고 썸마카라 화자는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그 얘기하는 내용은. 첫 번째 소녀는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욕심 없이 그냥 은혜를 갚기 위해 제대로 해주는 건데, 두 번째 소녀는 욕심 때문에 그런, 일부로 거짓말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나쁜 결과 받는. (<소녀와 호랑이> 中, 전사 : 강새미)

썸마카라 화자가 서사적 화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호랑이를 대하는 두 소녀의 태도에서 이미 서사적 화두의 답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난한 소녀는 욕심 없이 자신의 호미를 가져다준 고마운 행위를 먼저 생각하며 대했고, 부자소녀는 기존의 편견 혹은 거부감을 그대로 드러내어 호랑이를 적으로 만들었다. 핵심화소인 호랑이는 양면적인 존재다. 주인공이 어떻게 관계를 생성하는가에 따라 원조자가 되기도 하고 징치자가 되기도 한다.

구비설화의 많은 이질적 존재들이 이런 양면성을 가진다. <혹부리 영감>의 도깨비만이 아니라 이무기, 귀신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야기들은 이런 이질적인 존재, 나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존재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고 말한다. 모방담은 동일한 화소로 서로 다른 삶의 서사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며, 하나를 마음에서 선택하게 하는 방식의 구조다. 비교를 통해 행위만을 보고 관계를 생성했을 때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도 내 삶의 원조자가 될 수 있고, 편견으로 거부하고 교감을 닫을 때는 징치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각인해주기 위한 이야기 구조다.

6단계로 설화의 상징적 다의성으로 이 이주민 설화의 서사적 화두를 이질적인 다양한 문화와 어떻게 감응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넓혀 생각해 볼 수 있다. 타 문화와 교감하고자 할 때, 호랑이의 '상처 냄새'로 상징되

는 약점, 치부, 부정성을 중심으로 관계를 가지지 않고, 자신의 호미를 가져다 준 행위만을 보고 교감을 하는 가난한 소녀처럼 관계를 생성하는 것이다. 호랑이를 선뜻 교감하기 두려운 낯선 문화의 상징으로 볼 때, 이 이야기는 독사에 물리는 부자소녀처럼 기존의 가치로 이질적인 문화를 대하게 되는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함을 각인하게 하고, 가난한 소녀처럼 이질적인 문화를 ‘행위와 관계’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생성하게 한다. 결국 문화적 감응은 이질적인 존재와 어떤 태도로 관계를 생성할 것인가에서 시작됨을 캄보디아 설화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

### 3) 표면과 이면의 사유를 통한 관계의 성장 : <코코넛 바가지>와 <구렁덩덩신선비>

이주민 설화를 조사하다 보면, 한국의 설화와 비슷한 화소가 나오거나, 순차구조로 풀어가는 방향이 비슷하면서도 그 이야기만의 고유성이 있는 이야기들을 만나게 된다. 풀어가는 것은 비슷한데 그 나라만의 특이한 화소가 나온다. 그중 하나가 <코코넛 바가지>설화였다. <아기장수>의 화소와 <구렁덩덩 신선비>가 가지는 대립자질의 속성을 보여주고, <두고도 거지(신바닥이)>와 비슷한 서사의 방향을 비교하게 하는 이야기다.

<코코넛 바가지>설화는 2017년 12월 9일에 경산시 ‘다문화벗들 성바오로 배움터’에서 채록한 이야기다.<sup>22)</sup> 이야기를 들려준 베트남 출신의 부티프엉 화자는 조사 당시 27살로, 20살에 결혼을 해서 한국에 이주한 7년 차의 주부로 6살의 딸과 3살의 아들이 있다. 다섯 편<sup>23)</sup>의 베트남 이야기

22) 경산시 다문화벗들 성바오로 배움터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자녀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다문화교육을 하고, 백합식품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며 이주여성들이 공부를 하러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곳이다. 이날 베트남 부티푸엉 화자가 5편, 캄보디아 출신의 씨앙리티아 화자가 5편의 전설과 민담을 구술하였다. 화자를 연결해주시고 장소를 제공해주신 이갑조 수녀님께 감사를 드린다.

23) 이날 부티푸엉 화자가 구술한 설화는 <덤과 깎>(한국의 콩쥐팥쥐계열), <100마디 대나무>(욕심 많은 주인 딸과 혼인하기), <별나무>(홍부늬부의 화소), <바가지>, <탄동장수>(아기장수 계열)이다. 조사자들이 조사를 하러 간다고 알리자, 배움터

를 들려주었는데 모든 이야기가 긴 서사로 완결성 있고 한국의 설화에서도 비슷하게 전승된 설화를 선택해 구술한 것이 특징이다. 그중 <코코넛 바가지>의 이야기는 13분 동안 구연한 이야기다. 1단계인 <코코넛 바가지>설화의 서사단락은 다음과 같다.

- ① 가난해서 부잣집에서 일을 하며 사는 부부에게 50살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 ② 하루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날 아내가 숲 속으로 나무를 하러 갔는데, 목이 몹시 말랐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다.
- ③ 죽을 것 같아서 옆에 있던 해골의 물이라도 마셨는데, 해골물이 너무 맛 있었다.
- ④ 몇 달이 지나자 아내는 임신을 하고, 남편은 갑자기 죽게 되었다.
- ⑤ 9개월 10일 만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팔도 다리도 없이 동그란 코코넛 박 모양이었다.
- ⑥ 데굴데굴 구르는 아이는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고,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슬펐지만 정성껏 키웠다.
- ⑦ 시간이 흘러 아이는 집을 나가 돈벌이를 하고 싶다며, 부잣집의 소떼를 몰러 가겠다고 했다.
- ⑧ 부잣집 사람은 코코넛바가지를 보고 황당했지만, 밥도 적게 먹고 돈도 적게 받을 것 같아서 일을 시켰다.
- ⑨ 바가지는 데굴데굴 굴러다니며 소를 잘 몰고 다니자, 소들이 모두 통통하게 살이 찌서 부자는 아주 좋아했다.
- ⑩ 하인들이 일이 많아 소몰이를 하는 바가지에게 밥을 가져다 줄 사람이 없어서, 세 딸들에게 교대로 밥을 가져다주라고 했는데, 첫째와 둘째는 바가지를 무시했지만, 막내딸은 친절했다.

---

의 수녀님들과 부티푸엥 화자와 씨앙리티카 화자가 모국의 책들을 구해서 함께 한국어로 바꿔보고 어려운 부분들은 수녀님들의 도움을 받아 외운 것을 구술한 것이다. (조사자: 김정은, 황승엽, 강새미)

- ⑪ 어느 날 막내딸이 밥을 가지고 있는데, 피리소리가 나서 가만히 가보니 멧진 총각이 피리를 불면서 소들에게 풀을 먹이고 있었는데, 가까이 가니 총각은 사라지고 바가지만 있었다.
- ⑫ 바가지가 부잣집 딸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엄마에게 조르자, 부자는 자신의 딸과 결혼을 하려면 사금 한 항아리, 비단 10마, 돼지 10마리, 맛술 10항아리를 가져오라고 했다.
- ⑬ 어머니가 바가지에게 포기하자고 했는데, 약속한 날에 모두 준비되었다.
- ⑭ 부자가 당황해서 세 딸들을 불러 물어보자, 첫째와 둘째는 못생긴 바가지하고 결혼을 할 수 없다고 하고, 막내딸은 결혼을 하겠다고 했다.
- ⑮ 결혼식을 올리려는 순간 바가지는 보이지 않고 멧진 신랑이 서 있었다.
- ⑯ 바가지는 관리시험을 봐서 대사가 되었는데, 대사로 가면서 아내에게 부싷돌 한 개, 칼 한 개, 계란 두 알을 주었다.
- ⑰ 두 언니는 동생을 없애고 바가지의 아내가 되고 싶어서 막내를 피어서 배를 타고 나가 바다에 밀어버리자 고래가 한 입에 삼켜 버렸다.
- ⑱ 막내딸은 남편이 준 칼로 고래의 배를 갈라 살아남았지만 무인도였다.
- ⑲ 부싷돌로 고래를 구워먹으며 생활하고, 계란 두 개가 부화를 하니 암탉 수탉이 되었다.
- ⑳ 세월이 흘러 지나가는 배를 보고 수탉이 큰소리로 꼬끼오 울자 배가 다가왔는데, 바가지였다.
- ㉑ 바가지는 아내를 구한 것을 비밀로 하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음식을 대접했다.
- ㉒ 두 언니는 바가지와 결혼을 할 생각으로 기뻐하고 있었는데, 잔치가 끝날 때 막내 동생이 나타나자 부끄러워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부티프엉 화자 외에 2018년 3, 4월에 이와 비슷한 베트남 출신의 이주민들에게서 2편의 설화가 더 채록되었는데, 그 화자들은 이 설화의 제목을 <코코넛 해골을 먹은 아이>, <코코넛 아이>로 전승하였다. 부티프엉 화자는 등근 형태로 분리가 안 되고 붙어 있는 기이한 아이의 모습을 전

승하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다. 한국에 있는 ‘박’과 ‘바가지’에 빗대면서, “코코넛 같이 딱딱하고 동그란 것”이라고 덧붙이고 제목을 <바가지>라고 했다. 이는 한국인들과의 문화적 소통을 위해 생긴 변이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부티프엉 화자가 정한 제목과 다른 베트남 화자들에게 코코넛이 반복적으로 나와 <코코넛 바가지>라고 제목을 정했다. ③의 단락에서 목이 너무 말라서 살고자 해골물을 먹었더니 해골처럼 둥근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구술했다면, 다른 화자들은 코코넛인 줄 알고 해골물을 먹었더니 코코넛 같은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이야기 하였다. 이 단락을 제외하면 부티프엉 화자가 전승한 설화는 다른 전승본들보다 상세하고 완결적으로 구술되었다.

2단계는 이질적 화소를 찾고 그 상징적 의미를 생각해 보는 단계이다. 불완전한 형태의 동그렇게 분리가 안 된 기이한 모습의 탄생은 우리나라 전설 중 <아기장수> 이본 중에서도 있는 화소다. 아기장수가 진짜 나라를 구하는 장수가 되고 안 되고는, 낯설어서 두렵게 느껴지는 존재를 대하는 타자들의 몫이다. 아기장수는 타자들이 가진 두려움으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해서 장수의 삶으로 변형하지 못하지만, 바가지는 막내딸과의 관계를 생성해 멋진 신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형된다.

해골물을 먹고 생겨서, 해골의 형상으로 모든 몸이 멍처 있는 둥근 형태의 아이인 ‘코코넛 바가지’는 이 설화의 핵심화소다.<sup>24)</sup> 3단계 서사적 화두를 추출하기 위해 먼저 핵심화소를 둘러싼 대립항, 대립자질로 어떤 가치가 생성되는가를 살펴보겠다.<sup>25)</sup> <구렁덩덩 신선비>의 핵심화소인

24) 한 얘기 나왔는데, 얘기 좀 그렇게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냥 금방 이야기한 바가지처럼 생겼어요.

[조사자1: 바가지처럼 생긴 아이가 태어났어요?] 네네. 근데 그 살로,

[조사자3: 피부?] 네네. 그 생겼어요. 그 가면서 그냥 데굴데굴 굴렀어요. 발이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많이 좀 아프고 버리려고 했는데 그때 말했어요.

“버리지 마세요. 저 키워주라.”

고 했어요. (<바가지> 中, 전사: 강새미)

‘구렁이: 신선비’와 비슷하게 ‘코코넛바가지 : 멋진 총각’의 화소가 대립되게 하면서, ‘표면 : 이면’의 대립 자질을 형성한다. 화소의 속성이 아니라 관계의 속성으로 볼 때, ‘바가지와 세 딸’은 ‘빈 : 부’, ‘남 : 여’가 있다. ‘바가지와 두 언니’의 대립으로 생긴 ‘귀와 천’의 대립인데, 처음에 가난하고 불완전한 바가지가 두 언니들에게 무시당하는 천한 존재였지만, 신랑으로 변신하며 귀한 존재로 변신하고, 이후에 두 언니는 시샘으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귀와 천의 의미가 바뀌게 된다. ‘두 언니 : 막내딸’의 대립은 ‘기존의 가치 : 새로운 가치’로 두 언니들은 기존의 가치로 코코넛바가지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는 반면, 막내딸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시선으로 코코넛 바가지의 이면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문화 : 새로운 문화’의 대립자질까지 상호문화교육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코코넛바가지는 뭉쳐져 있는 표면만이 아니라 피리를 부는 이면을 발견한 막내딸의 안목으로 변신하게 되는 것이다. 막내딸은 기존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를 방해하면서 고립되지만, 자신의 안목으로 변신하게 한 신랑의 도움으로 위기를 해결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방향의 서사를 읽어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대립구조는 비슷했던 <구렁덩덩신선비>에서 구렁이신랑의 허물을 간직하게 하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 콤플렉스, 부족한 부분 등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부부관계의 신뢰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금기를 막내딸이 어기면서 이후에 막내딸이 갖은 고난을 겪고 신랑되찾기를 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달리, 코코넛바가지는 막내딸의 위기를 예견하고 무인도에 떨어진 막내딸을 구하는 조력자가 된다는 점에서 구조적 차이를 보인다.

코코넛바가지의 순차구조와 막내딸의 순차구조는 반대의 방향으로 움

25) 여기서 대립항이라는 기호를 사용하는 것은 기존의 가치를 개입해 판다는 것이 아니라, 설화 안의 대립으로만 보았을 때 발생하는 가치를 찾아내기 위해서다. 기호는 주체가 명명해주는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호와의 비교를 통해서 체계 내에서 자신의 가치를 획득한다. (김정은, 앞의 논문, 273면.)

직이다. 덩어리인 코코넛바가지는 겉보기에 부족하고 불완전해 보인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해골물로 인해 덩어리로 나온 바가지가 과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어머니의 걱정과 태도가 곧 이 이야기의 화두로 시작된다. 여기서 4단계인 서사적 화두를 생성해 볼 수 있다. 코코넛바가지를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생각했을 때, 이 서사의 화두는 ‘불완전하게 바가지로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일 것이다. 여기에는 어머니의 걱정처럼 바가지가 일반적인 사람노릇을 하며 살기 어렵다는 대립항이 전제되어 있는 것인데, 모두의 전제와는 다르게 바가지는 그런 모습으로도 소몰이 등의 일을 잘 수행해 낸다. 그리고 뭉쳐져 있어서 보이지 않았을 뿐인 자신의 이면을 알아보는 막내딸과 결연하여 자신의 모습을 변형시킨다.

5단계는 생성된 화두로 설화를 해석하는 단계이다.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표면으로 결핍이 있는 존재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던 ‘코코넛바가지’가 자신의 이면을 알아봐주는 막내딸과의 관계 확장을 통해 결핍을 해소하며 자신을 변형할 수 있게 된다.

<구렁덩덩신선비>에서는 금기가 있고, 언니들의 시샘으로 ‘떠남 → 신랑되찾기’의 순차구조로 막내딸이 신랑을 되찾기까지 어렵게 길을 찾고 새각시와 경쟁하여 관계를 회복한다면, <코코넛바가지>에서는 언니들의 시샘으로 인해 무인도에 갇히는 ‘고립 → 생존 → 발견’의 순차구조를 볼 수 있다. 코코넛바가지와 다르게 막내딸은 부잣집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 더욱이 막내딸은 두 언니들과 다르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코코넛바가지의 또 다른 모습까지 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관계도 맺을 수 있는 적극성도 있어, 두 언니들이 시샘하고 질투할 정도로 훌륭한 남편까지 갖게 된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 시샘하는 두 언니로 인해 고래의 뱃속에 갇히고 섬에 고립된다. 이런 섬이라는 고립의 화소로 해석할 때, ‘새롭게 형성된 관계로 인해 섬처럼 단절된 삶을 어떻게 해결하며 다른 존재로 거듭나는가?’의 서사적 화두가 막내딸에게도 생기게 된다. 기존의 관계였던 두 언니들의 시

샘으로, 다 갖춰진 것 같은 막내딸 역시 바가지처럼 자신의 존재를 변형하고 성장해야할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무인도라는 공간은 관계의 단절인 곳인 동시에 새로운 관계를 생성할 수 있는 이중적인 속성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구렁덩덩신선비>의 두 언니들은 기존의 가치와 다른 선택을 한 막내딸이 가지고 있는 허물을 태움으로써 시련이 생기게 한다면, <코코넛 바가지>의 두 언니들은 막내딸을 고립시킨다. 두 언니들의 시기심만이 문제는 아니다.

여기서 문화적 상징으로 연결되는 6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지점이 있다. 두 언니들로 인한 막내의 고립은 시샘을 넘어 새로운 가치, 새로운 문화와 접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존 가치와 문화가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이기도 하다. 이때 신랑은 신부의 위기를 예견하고 칼, 부싯돌, 계란을 준다. 칼은 시기와 질투로 자신을 가둔 고래 뱃속 같은 기존의 관계와 가치관의 폭력을 절단하게 한다. 부싯돌은 불을 생성하여, 죽은 고래 고기로 막내딸이 살아낼 수 있게 한다. 죽음을 상징하는 것 같은 해골에서 물이 생기고, 그 물로 바가지라는 생명이 생성된 것과 연결해 볼 수 있겠다. 둥근 계란이 수탉과 암탉이 되는 것은,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존재라는 타인들의 시선을 받았던 코코넛 바가지 안에 이미 멋진 신랑이 세팅되어 있었던 것과 연관된다. 비주류·소수자 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코코넛바가지가 관계를 확장하고 변형하며 자신의 존재를 만들어 간다면, 주류·다수자의 문화 속에 있었던 막내딸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두 언니로 상징되는 기존의 건강하지 못한 관계, 가치관, 문화를 가를 힘이 필요하다. 이런 힘은 다름 아닌 코코넛바가지였던 신랑을 통해 얻게 된다. 소수자로 소외되었던 바가지가 막내딸 삶의 조력자가 된 것이다. 물론 바가지는 신부의 시련을 예견하지만 자신과 함께 대사의 길로 동행하게 하지 않는다. 세 가지의 물건을 주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도 순전히 막내딸의 몫이다. 막내딸은 세 가지 물건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낼 힘을 얻은 후, 다시 바가지를 만난다.

모든 것이 뭉쳐있어 그 존재의 가치를 알아차리기 힘든 코코넛바가지의 형태는 보통의 인간보다 이질적이고 기이해, 기존의 의식과 문화 수준에서 바라본다면, 바가지의 인간적 가치까지 평가 절하되기 쉽다. 이는 한국설화 <두고도 거지>의 주인공이 단명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부자인 부모와 집을 두고도 거지가 되어 돌아다니다가 부잣집의 하인이 되었을 때, 거지 혹은 하인으로만 평가 절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류와 다수의 시선인 두 언니가 보았을 때는 박 혹은 코코넛처럼 ‘뭉쳐 있는 형태’에만 집중하게 되어 편견으로 바라보게 될 뿐이다. 그러나 비주류의 문화, 소수자의 문화와 교감하고자 하는 막내딸이 어느 날 갑자기 멋진 남성의 모습을 스치듯 본 것처럼 박 안에 다른 모습을 분명히 내재한 존재다.

<코코넛 바가지>설화는 ‘보통의 인간보다 못한 존재’로 보인다는 삶의 문제를 ‘관계 확장’을 통해 해결하며 삶을 변형해 가는 모습에서 가치를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성숙하고 불완전해 보여 타인과 다른 이질적이고 기이한 인간이지만 관계의 확장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능력, 지혜가 드러나며 자신의 모습을 변형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막내딸이 불완전하고 이질적인 존재와 교감하고 관계를 형성해서 멋진 신랑을 얻게 되자, 기존의 문화를 대변하는 두 언니는 ‘접속하고 변화한 사람’에 대한 심술과 질투로 막내딸을 고래 뱃속에 갇히게 해서 손과 발이 있어도 바가지처럼 움츠러 들게 한다. 하지만, 막내딸은 그 시련으로 인해 기존의 관계와 문화를 단절하고 자신의 삶을 갱신하며 새로운 관계, 새로운 문화로 성장할 내면의 힘을 가질 수 있었다. 주류 문화의 막내딸이 소외된 문화의 코코넛바가지와 관계를 생성하여 문화적으로 감응했을 때, 보통의 인간보다 못한 존재처럼 보였던 코코넛바가지는 멋진 신랑으로 삶이 변형되었고, 딸은 오히려 섬 같은 기존의 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를 융합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코코넛바가지와 막내딸이 던지는 서사적 화두로 삶을 변형하고 관계를 성장하며 삶의 가치를 생성하는 과정에 동참하다 보면, 어느새 설화로 응축된 베트남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감응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4. 결론

다양한 문화의 시대에 필요한 상호문화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탈리아 교육학자 카를로의 구술성에 주목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구술한 설화 자료를 바탕으로 ‘상징적 표상’이 생성하는 ‘다양한 가치’를 바탕으로 상대적 감각을 키워낼 수 있는 교육요소와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카를로의 논의를 넘어서기 위해 다양한 문화와 접촉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데, 한국에서 구술된 이주민 설화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서사적 화두를 통한 문화적 감응력의 확장을 교육요소로 논했다. 구비설화로 문화적 감응력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은 낯설지만 호소력 있어 각인되는 화소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주민 설화의 서사적 화두가 제시하는 삶의 방식에 감응되는 것이, 설화의 상징적 표상으로 응축된 그 문화에 감응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화가 제시하는 독특한 화소로 어떤 삶의 가치가 생성되어 그 문화의 사유방식으로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주민 설화를 듣는 과정은 늘 새로운 화소를 만나는 일이 된다. 새로운 화소를 만나는 것은 응축된 그들 문화의 또 다른 이면을 만나는 과정이 된다. 그 나라 사람들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응축한 것이 낯설고 이질적인 화소들이기 때문이다. 서사적 화두가 전승하는 서사방향은 이런 낯선 상상의 사건들에 감응하게 하는 것이었다.

익숙하고 동질적인 것만을 결합하고 싶은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은 편안해 보이지만, 인도네시아 설화의 ‘뒤집어진 배산’처럼 그 자리에 고착되기 쉽다. 이질적인 낯선 문화는 ‘상처로 냄새나는 호랑이’를 만난 것처럼 다가가기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부자소녀처럼 편견에 빠지지 않고, 가난한 소녀처럼 행위와 관계의 문제로 접근한다면, 그 문화는 우리 삶에서 가치 있는 보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 우리와 달라서 낯선 문화는 뭉쳐져 있는 ‘코코넛 바가지’처럼 거부감

을 가지거나 평가절하하게 될 때가 있다. 그러나 아직 미지의 문화라 알 수 없을 뿐이다. <코코넛 바가지>에서 말하는 서사적 화두에 감응된다면, 이주민 설화로 우리도 막내딸처럼 알려지지 않아 묻혀져 있는 것 같은 문화와 관계를 형성하며 새로운 삶의 가능성으로 자신을 구성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주민 설화를 들으면서 한국 설화에서 접하지 못했던 낯설고 이질적인 화소 중에 우리나라 설화나 이미 알고 있는 설화의 화소와 비슷한 것은 없는지, 비슷한데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인지 ‘상징적 표상’을 비교하는 과정은 삶의 새로운 가치를 획득해 가는 일이 된다. 본고에서는 이주민 설화가 가진 상징적 표상이 형성하는 가치 중 ‘동질적 결합의 고착’, ‘이질성과의 마주침’, ‘표면과 이면의 사유를 통한 관계 생성’에 집중해 해석했지만, 앞으로 더 다양한 상징의 해석으로 이주민 설화가 다양한 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초석이 되리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논저>

- 고희성,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을 위한 융복합교수-학습 방안 연구-국어와 도덕 교과와 ‘배려’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51, 국어교육학회, 2016.
- 김성진, 「상호문화주의와 세계문학 교육」, 『문학교육학』 49, 한국문학교육학회, 2015.
- 김정은, 「설화의 서사문법을 활용한 자기발견과 치유의 이야기 창작 방법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_\_\_\_\_, 「<콩치 닷 밭 주둥이 닷 밭>설화에 나타난 탐색과 문답의 서사원리 연구」, 『한국고전연구』 38, 한국고전연구학회, 2017.

- 김혜진,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 능력 향상을 위한 설화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혜진·김종철, 「상호 문화적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의 ‘흥’이해 교육」, 『한국언어문화학』 1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5.
- 신동훈, 「서사적 화두를 축으로 한 화소-구조 통합형 설화 분석방법 연구」, 『구비문학연구』 46, 한국구비문학회, 2017.
- \_\_\_\_\_, 「새로운 한국어문학으로서 이주민 설화 구술의 성격과 의의」, 『국어국문학』 180, 국어국문학회, 2017.
- 오정미, 『다문화사회에서의 한국의 옛이야기와 문화교육』, 한국문화사, 2015.
- \_\_\_\_\_, 「이주민 설화 조사를 통해 본 새로운 다문화교육 방안」, 『구비문학연구』 47, 한국구비문학회, 2017.
- 이성희, 「다문화사회에서 상호문화능력 신장을 위한 한국 민속 교육의 설계」, 『한국민족문학』 4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2.
- \_\_\_\_\_, 「다문화역량 신장을 위한 동아시아 이야기 콘텐츠의 주제론적 접근 : <콩쥐팍쥐>와 <섭한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문화와평화』 11,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17.
- 임경순, 「다문화 시대 소설 교육의 한 방향」, 『문학교육학』 36, 한국문학교육학회, 2011.
- 임진숙, 『천 가지 이야기가 있는 나라 인도네시아』, 즐거운 상상, 2007.
- 정운채, 「자기서사의 변화 과정과 공감 및 감동의 원리로서의 서사의 공명」, 『문학치료연구』 25, 한국문학치료학회, 2012.
- 최성환,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전망」, 『철학탐구』 24,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08.
- 하은하, 「한국어교육을 위한 동아시아 설화 비교 연구-한국, 베트남, 태국의 <나무꾼과 선녀>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31, 서울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17.

C.I.레비스트로스 저, 안정남 역, 『야생의 사고』, 한길사, 1999.

마달레나 드 카를로 저, 장한업 옮김, 『상호문화 이해하기:개념과 활용』, 한울, 2011.

테리 이글턴 저, 김명환 외 역, 『문학이론입문』, 창작과비평사, 2015.

논문투고일자: 2018.5.31. / 심사완료일자: 2018.6.12. / 게재확정일자: 2018.6.30.

## Abstract

### Study on the Educational Plan to Enhance Intercultural Abilities Using the Oral Folktales of Immigrants who Moved to Korea

Kim, Jeong-Eun

As a way of enhancing the intercultural ability needed for diverse cultural eras, this study focuses on the “narration” of the Italian education scholar Maddalena De Carlo in order to determine the “diverse values” created by the “symbolic representation” based on the folktales narrated by immigrants living in Korea. Through this, it specifically presents educational elements and contents that can raise relative sensitivity.

The authors of this paper have connected, empathized, and communicated with people of various cultures in order to go beyond Carlo’s discussion. The paper discusses the expansion of cultural sensitivity as an element of education through narrative topics using the folktales of immigrant narrators in Korea. It also recognizes the limitations of a desire for a homogeneous union within an intercultural society and thus formulates educational contents for creating a relationship with heterogeneous ideas through the elimination of communication barriers through heterogeneity and a consideration of the surface and the back. This is systemized in six steps. Step 1: Listening to oral folktales of immigrants, Step 2: Finding heterogeneous motifs imprinted in the immigrants’ memories, Step 3: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opposing qualities symbolized by heterogeneous motifs, Step 4:

Creating narrative topics containing the key motifs, Step 5: Generating the value of symbolic representation as a narrative topic, and Step 6: Expanding the value of life into a cultural symbol.

In Chapter 3, this study focuses on educational contents using immigrants' folktales by applying these six steps. The class contents include the recognition of the limitations of desire for a homogeneous union within an intercultural society and the consideration of how to create a relationship with heterogeneous ideas through the elimination of communication barriers through heterogeneity and consideration of the surface and the back.

This paper then compares the Indonesian folktale, *The Inverted Ship Mountain and the Mom's Mountain*, with the world-famous *Oedipus* myth, to determine what the symbolic representation of these heterogeneous motifs is. In Step 6, when the symbolic system is culturally extended, the incestuous desire that appears in the "inverted ship" is interpreted as a fixation that was created when the character sought to unite with homogenous idea. The Cambodian folktale, *The Girl and the Tiger*, is a story that is reminiscent of the Korean folktale, *The Old Man with a Lump*. Through the motif in "Tiger," this paper generates a narrative topic that will enhance the students' intercultural abilities by culturally expanding their skills in how to relate with a heterogeneous being that is usually represented as an animal. The Vietnamese folktale, *The Coconut Bowl*, similar to the Korean folktale, *GureongDeongDeong SinSeonBi*, is a story that draws a variety of considerations about the surface and the back, and it shows readers how to build a relationship with a heterogeneous

idea and how to develop and grow with such a relationship.

Thus, if a narrative topic is generated and readers are able to empathize using an opposing feature formed by the core motif of the folktale, it becomes possible, through immigrant folklore, to construct a possibility of a new life through the formation of a relationship with an unfamiliar and heterogeneous culture.

Key words: immigrants, narration, intercultural abilities, heterogeneity, narrative topics, cultural sensitivity, Cambodian folktale, Vietnamese folktale, Indonesian folktale